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쫓 떤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쫓 떤 아이와 같도다” (시편 131:2)

지난 2~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도, 특히 지난 한 해
전반기 사역기간 동안 다소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무리 넓은 바다에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깊은 심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이 기쁘고
평온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아끼지 않은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초 몇몇 학생들과
가족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부분적으로 학교 수업을 하지 못했던
적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부터 자신과 가족,
혹은 일터나 학교 등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대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하고, 또 생명을
잃기도 했으니까요. 부분적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었을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수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학교

1 학년부터 고등학교
2 학년까지 67 명의
학생들이 무사히 한
학년을 마쳤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것은,
코로나로 뒤쳐진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었는데,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오는 가을 시작되는



새 학년 새 학기에는 좀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면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교사들의 캠프 미션 프로그램인 ‘유카탄 미션 캠프’는 미국에서 참석하는 교회가 없기도 하고, 또 현지 청소년들의 참여도 많지 않아, 올해는 스태프들과 함께 이사말과 인근의 2개 교회에서 오전 오후로 나눠 여름성경학교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스태프들이 꾸준히 모여 교재를 점검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야 하겠기에, 준비한 것들을 통해 복음을 제시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았고, 또 지난 몇 주 동안 감염자가 증가하는 등, 위험한 요소들이 남아 있지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스태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될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New Generation Church (새세대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아직 답보적인 상태입니다. 약 30 명의 교인들의 출석이 들쭉날쭉하고, 전담 교역자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들을 꽂꽂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두 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적은 인원이
모여서라도
하나님을 높이며,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담임

교역자가 세워져 교인들을 돌보고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남 선교사는 지난 6월 중순,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를 만났습니다. 조경을 돌보던 중 앉았다가 급히 일어서다가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급히 메리다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며, 재활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활훈련을 통해, 그동안 완전치 못했던 부분들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부활절 방학기간 중, 약 3 주 동안 한국을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남 선교사는 오래 전부터 꿈과 희망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꿈꾸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미국이나 한국 방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뵤엘 아카데미의 '코람데오' 합창단 약 40 명의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스태프 등 약 50 여명이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의 발자취를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 또 학업적으로도 한국학생들의 학업분위기를 몸소 체험시켜 학력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꿈과 비전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지 도전을 주려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합창단의 한국방문을 위해서도 강력한 기도후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뵤엘 아카데미는 중학교 3 개 학년, 고등학교 3 개 학년, 모두 6 개 학년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중학교는 이제 꽤 자리를 잡아 유카탄 주에서 괜찮은 학교로 소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뵤엘 아카데미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국가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고등학교가 그런 주변 요소에 상관없이 좋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 그런 현상들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모든 과목에 전공한 교사들을 채용해서 교육

수준을 높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끝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비와 긍휼’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아니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데, 꼭 나에게 그것들을 보여 주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다가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이 여기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이웃들에게 거룩하게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한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항암 치료중인 둘째 처남을 위하여,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하여
- 이철남 조은경 선교사와의 동역, 청년 사역자들(디렉터 노에, 행정담당 싸울)의 건강, 교사들과 직원들(15명), 여름성경학교, 후임 선교사를 위하여

2022년 7월 / 이사말, 유카탄 멕시코에서/지용한 경애 선교사

사진설명

1. 발렌타인데이. 학급에서 키가 제일 작은 학생이 키가 제일 큰 같은 반 친구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며 포옹하고 있는 모습
2. 뽀엘 아카데미에서는 기독교 교육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야문화’ 체험 시간을 갖고 있다.
3. 예능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 배운 악기 실력을 인근 교회에서 발표하고 있는 뽀엘 학생들
4. 2~3 개월에 한 번씩 모이는 교사회는 학업적인 것들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도 점검하면서 학생들을 선도하고 있다.
5. 프로그램 점검 후, 해변에서 쉼을 얻고 있는 유카탄 미션 스태프들
6. 학생들이 준비한 ‘어머니 날’ 예배를 마치고, 오찬을 나누기 위해 식당으로 향하고 있는 엄마들을 환영하고 있는 뽀엘 학생들
7. 학교에서 배운 자연과학에 관한 것들을 인근 학교에서 실습하고 있는 뽀엘 학생들